



## 롤 카이퍼 Roel Kuiper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인터뷰 최용준 (한동대 교수, 실행위원) 사진 장형규 (객원사진기자)

지난 5월, 총신대학교에서 총회설립 100주년 기념  
 “세계개혁교회대회 International Congress of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es”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전 세계 많은 기독교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네덜란드의 차세대 기독교 철학자이자, 상원의원인 롤 카이퍼 Roel Kuiper 박사를  
 그의 오랜 동료이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인 최용준 교수(한동대)가 만났다.

### Q1. 간단히 자신을 소개해 주시지요.

저는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교에서 역사와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후 기독교연합당(CU)의 연구소 소장으로 일했고, 1998년에는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교에서 기독교 철학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제 전공분야는 사회 및 정치철학으로, 기독교의 공적 윤리가 세속화된 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기독교철학 및 사회 윤리적 자문에 관해 책을 썼으며, 2007년부터는 네덜란드 의회의 상원의원으로 있습니다.

### Q2. 한국을 방문하게 된 목적은 무엇인지요.

한국의 총신대학교가 주관한 총회 100주년 기념 ‘개혁주의 및 장로교회 국제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정치와 신앙을 주제로 정치와 사회에 미치는 개혁주의 사상의 영향에 대해 강의하였는데, 한동대의 최용준 교수의 초청으로 한동대에서도 동일한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 Q3. 한국 방문은 처음이신지요. 한국에 대한 인상은 어떻습니까?

이번이 첫 한국 방문입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첫 인상은 현대적이고 성공적인 사회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의 재건에 기여한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여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 Q4. 개혁주의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개혁주의 사상의 탄생지인 자유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유대학교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가 설립한, 그의 개혁주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여기서 공부하며 개혁주의 사상의 개념적 강점과 현대 과학 및 철학의 핵심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요. 특히 기독교 신앙을 모든 학문에 연결시키는 방식이 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물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이런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5.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이며 네덜란드 의회의 의원이십니다. 교수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정치와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민이자, 투표권자로, 사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자이자 선한 청지기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러한 동기들로 저는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기독교 정당에 참여하여 이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정당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창한 개혁주의 전통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그의 유산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Q6. 네덜란드 의회에서 상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활동하신 내용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덜란드 의회는 상원과 하원 양원제이며, 저는 75명의 상원의원 중 한 명입니다. 모든 입법은 상원의원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기독교연합당(CU)의 당수이자 지도자로 일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네덜란드의 사회화 정책에 대해 국회의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Q7. 한때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주의적 사상, 기독교세계관이 네덜란드 사회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습니까?**

기독교세계관은 네덜란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 정치 및 종교의 자유에 강조를 두었지요. 교육의 자유 등 네덜란드 헌법의 '자유'는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것입니다. 공적 도덕 또한 기독교 윤리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전히 문화적 유산으로 남아 있으나, 또한 새로운 자유주의, 개인주의 및 세속주의적 사상의 도전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슈들과 연결된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기독교적인 공적인 삶, 기독교 교육이나 의회, 법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기독교적 아이디어와 가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주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8.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네덜란드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개혁주의의 산실이며 기독교 국가라 할 수 있을지요. 현재 네덜란드의 종교적 기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항상 네덜란드 내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 간의 팽팽한 긴장을 경험합니다. 전 국민의 20%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즉 개신교 및 가톨릭교도입니다만, 점차 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치 주류세력이 공적 영역을 중립화하려고 하면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점점 더 축소되고 있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점은 지난 몇 년간 이슬람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것은 과거 모로코와 터키 등에서 유입된 노동 이민의 결과라 할 수 있는데, 현재 약 100만 명의 모슬렘이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Q9. 기독교세계관이 네덜란드의 정치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합니까?**

불행히도 그 숫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상원, 하원에서 기독교 정당은 이제 전체 의원의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독교인들이 다수를 이룬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정치적 영향력은 아직까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정부 내각의 한 부분이고, 아직 기독교적 윤리라는 유산이 남아있기에 때문입니다. 낙태 반대 정책, 노인 복지 정책 등에 관한 입법과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은 대부분 기독교 윤리에 의해 형성되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Q10. 학자로서 네덜란드와 한국의 기독교 학자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조언을 한다면.**

저는 한국 및 네덜란드의 기독교학자들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한국의 기독교학자들은 매우 열심히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제 기독교학계에서 새로운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기독교학자들은 기독교적 학문의 깊이와 오랜 뿌리가 있지만, 동시에 세속화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보다 더 많은 기독교학술단체들이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 유럽, 남아공, 캐나다 및 미국 등의 기독교 대학들을 연계하는 국제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세계관은 네덜란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 정치 및 종교의 자유에 강조를 두었지요.**

**교육의 자유 등 네덜란드 헌법의 '자유'는**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것입니다.**

**Q11. 정치와 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한국의 그리스도인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보다 더 한국사회의 정치적인 논쟁에 참여하고 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언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볼 때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 기독교적 입장을 대변할 인프라가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방문한 교회들과 새벽 기도 모임 등에서 만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용하셔서 아시아와 세계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롤 카이퍼** Roel Kuiper 네덜란드의 사학자, 철학자, 정치인이자 대학 교수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에서 철학박사를 받고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에서 개혁주의 철학 및 정치 및 사회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국가정치체제의 개정과 세속화 되는 네덜란드에서 실천적 기독교 신앙을 실현하고자 네덜란드 기독교정당인 기독교연합(ChristianUnion)의 연구소에 있었다. 2007년 네덜란드 상원의원, 2011년부터 기독교연합 정당 지도자로 일하고 있다.